

개발도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¹⁾

문무경 유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199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인을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의 이념은 아동의 보호·교육받을 권리와 평생학습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육아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의의를 뒷받침한다. 2000년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는 164개국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성인 즉, 만인에게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천명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만인의 인권 보장과 더불어 모든 연령에 있어서 학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의 소외 계층과 극빈층을 가장 우선적으로 돕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유네스코는 2003년부터 매년 EFA Global Monitoring Report를 작성하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있다. 이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다카르에서 설정한 목표와 가장 동떨어진 지역에서조차 취학률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다카르 효과(Dakar Effects)’가 입증되고 있다. 즉,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극빈층 및 여학생을 포함하여 2000년 이래 기초교육 수혜 대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교육시스템이 확장될수록 가정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아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HIV/AIDS 질병,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야만 한다.

유네스코의 EFA Global Monitoring Report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며 정치적인 비전과 노력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뢰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본고는 2007년도 EFA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개

¹⁾본고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운영하는 유네스코 교육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필자가 번역한 유네스코 Global Monitoring Report 2007 Summary에서 일부 발췌·정리한 것임.

발도상국의 ECCE²⁾ 실태와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적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카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과 요건을 요약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EFA의 6가지 목표를 소개하고 그 첫 번째 목표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확대를 설정한 이유를 제시하기로 한다.

I. EFA 첫 번째 목표로서의 유아교육과 보육 확대

2000년 다카르에서 164개국이 채택한 '만인을 위한 교육' (EFA)의 6가지 목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EFA의 6가지 목표는 아동의 인지 발달 및 보호에서부터 청소년과 어른을 위한 문해 및 생활 습관 등 광범위한 학습 범위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EFA의 첫 번째 목표는 포괄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의 확대로, 특히 지금까지 취학 전 프로그램을 가장 이용하지 못했던 아동을 주요 대상 집단으로 한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란 신생아에서 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이 함께 제공되며, 건강 및 영양에서부터 인지, 사회, 정서 등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둔 것을 의미한다.

<표 1>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6가지 목표(The Education for All Goals)

1. 사회적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
2. 2015년까지 모든 아이들(특히 여아와 빈곤층 및 소수 민족 아이들)에게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 교육 제공
3. 모든 청소년과 성인에게 적합한 학습 및 생활기술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학습 요구 충족 보장
4. 2015년까지 모든 성인의 문해율 50% 달성(특히 여성)과 모든 성인의 기초 및 평생교육에의 평등한 접근 기회 보장
5. 2005년까지 초·중등학교에서의 양성불평등 제거 및 2015년까지 여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초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성취를 강조한 양성평등의 달성
6.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및 수월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이의 학습 성과, 특히 문해, 수, 생활기술에 있어서의 학습성과 측정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Summary p.7)

2) ECCE는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의 약자로 유네스코 표기 방식임.

EFA의 첫 번째 목표는 유아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며, 왜 유아기가 중요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나중에 불이익을 보상하기보다 미리 지원과 예방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둘째, 양질의 보육은 일하는 부모, 특히 취업모에게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셋째,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빈곤가정 아동이 겪는 불평등과 불이익을 상쇄하면서 매우 높은 경제적 이익을 야기한다. 요컨대 ECCE는 EFA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II. 개발도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실태

1.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증대

개발도상국에서 ECCE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제공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5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서도 노동시장에 여성노동력이 방대하게 유입되면서 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친족이나 비형식적인 지역공동체에 육아를 의존하던 상황이 변화하게 되었다. 2005년 여성의 노동참여비율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55%를 초과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해에서도 약 50%를 차지한다. 한편, 남아시아(35%), 아랍국가들(28%)의 경우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소득과 소비에 있어서 여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중 아동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고, 또한 유아기 서비스를 통해서 남아와 여아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 3세 이하 아동을 위한 공공 보육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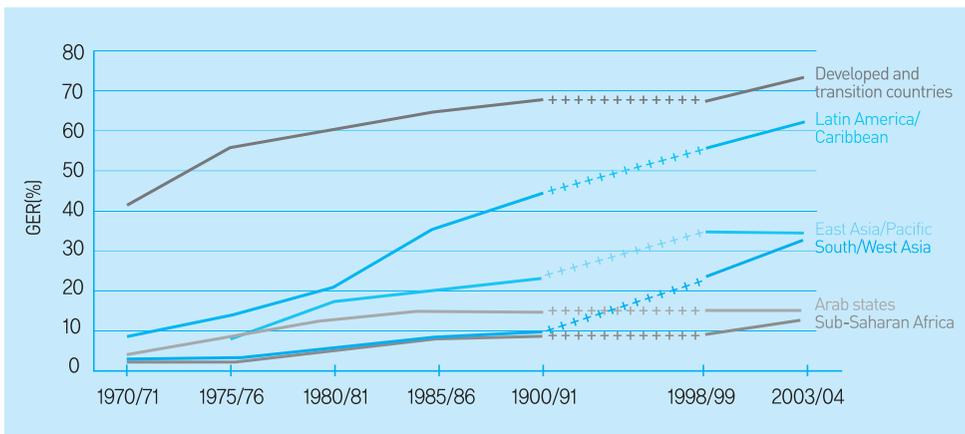
전 세계 0~5세 아동은 세계인구의 11%인 약 7억 3천8백만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의 인구 성장에 힘입어 2020년에는 7억 7천 6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도상국에서 3세 이하 아동을 위한 ECCE는 사립기관 또는 비정부단체와 부모의 책임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3세 이하 아동에게는 전형적으로 반일제 보육을 실시하고 일부에서만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교육활동을 함께 제공한다. 만약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3세 이하 유아용 프로그램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될 것이다.

3. 3~5세 아동의 ECCE 서비스 이용률 증가

전 세계적으로 취학 전 서비스 기관에 등록된 아동 수는 1970년대에 4천 4백만에서 2004년에 약 1억 2천 4백만으로 증가하여 과거 30년 동안에 약 3배가 되었다. 취학 전 기관 이용률은 각 국가의 공식적 연령집단(전형적으로 3-5세) 아동 수의 전체 입학율로 나타낸다. 1975년에서 200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취학 전 기관 이용률은 17%에서 37%로 2배 이상이 되었다. 일부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에서는 1970년 약 40%에서 2004년 73%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1975년에는 취학 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평균적으로 아동 10명당 1명 정도 였으나 2004년에는 아동 3명 중 약 1명으로 증가하였다. 1991년과 2004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81개 국가 중 4/5의 국가에서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자료: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7 p.28.

[그림 1] 3~5세 아동의 ECCE 이용률(1970/71~2003/04년)

총이용률이 30%이하인 국가는 52개국으로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들이며 대부분 최근 증가율도 5%이하로 낮다. 1999년 기준으로 총 이용률이 30%이상인 국가는 66개국이었으나 2004년 8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브라질, 쿠바, 에쿠아도르, 멕시코, 자메이카의 경우 10%이상의 현저한 증가율을 나타낸다.

많은 국가들이 최소한 3세 이상의 유아들을 위해서 2010년이나 2015년까지 ECCE 서비스 이용률을 증대하려는 범국가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국가들은 2015년까지 '보편적' ECCE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총 취원율이 40%이하인 인도, 카자흐스탄, 파라과이가 그러하고, 최근 총 취원율이 50%를 넘는 칠레와 멕시코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3세 이하 이동을 위한 공공 보육 부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취학 전 교육에 있어서 성 차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남아 대 여아의 총 취원 비율은 1:0.97이다. 특히 성 차별이 심한 아랍 국가들에서 1999년 1:0.76에서 2004년 1:0.87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서남아시아 또한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양성평등화를 향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남아 대 여아의 취원 비율이 최저인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파키스탄, 예멘이 해당된다.

5. ECCE 교사

개발도상국에서 ECCE 교사들의 자격은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 수준까지 매우 다양하다. 형식적인 자격 기준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항상 자격기준이 낮거나 거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ECCE 교사들이 자질을 갖추도록 양성 및 현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선해 가고 있다. 우간다와 이집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로코의 경우 각 지방마다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서비스와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교사자료 센터를 설립하였다.

OECD 국가들에서는 ECCE 교사들의 20% 이상이 50세 이상이다. 최근 개발도상국과 중진국

에서는 ECCE의 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초등교사보다 더 젊은 교사가 근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표 2〉 개발도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실태 요약

■ 출산휴가제도와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 개발도상국의 약 80%정도가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세계 절반가량의 국가들에 있어서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함.

■ 서비스 이용률

- ECCE 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낮지만, 1970년 이후 3배로 증가하였음.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최소한 2년 동안 무상취학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가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그리고 태평양 연안의 취학 전 교육기관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이에 비해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랍 국가 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취학전 교육기관 취업률은 훨씬 낮음.
- 중진국의 ECCE 서비스 이용률은 1990년대 급격한 감소 후에 중부유럽 및 동유럽 국가에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ECCE 서비스 이용률에서는 양성 평등에 근접함.
- 한 국가 안에서도 ECCE 서비스 이용률에서 불균형이 존재함. 즉 저소득층 가정 및 농아촌 지역 거주,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의 경우 부유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아이들보다 취업률이 현저히 낮음.
- ECCE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실조와 예방가능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ECCE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음.

■ 서비스 공·사립 부문

- 선진국과 중진국, 라틴아메리카에서 대부분의 ECCE 서비스는 공공 부문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랍 국가, 카리브 해,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사립 부문 비중이 큼.

■ 재정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EOCE는 정부 재정지원의 우선순위가 낮고, 공공 및 사립 서비스 공급자가 광범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부족으로 EOCE에 대한 총 국가비용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각 국가들은 EOCE 서비스 이용률, 질, 그리고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 EOCE는 기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님. 거의 대부분이 초등교육에 제공하는 비용의 10%미만을 취학 전 서비스에 할당하며, 절반이상의 국가들이 2%미만의 비용을 취학 전 서비스에 배정하는 실정임.

■ 종사자의 교육 및 급여 수준

- 개발도상국의 EOCE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

Ⅲ. 개발도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를 위한 노력

1.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해서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으며, 가정방문프로그램은 개별 부모를 상대로 일대일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비용 소요가 많으므로 위험에 처한 가족을 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지역사회는 가정 또는 지역 중심의 보육시설을 통하여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Hogares Comunitarios 프로그램은 출생에서부터 6세까지의 백만이 넘는 아동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중요한 시초가 되었다. 이는 가난한 가정에 영양을 공급하고자 고안된 것인데 현재는 보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13~17세의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취학율이 높고 학교낙오율도 낮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2. 교수법과 교육과정: 학습 기초 마련

특히 3-6세 연령 집단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센터중심의 방식이다. 실제로 아동의 연령과 문화적 환경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점검함으로써 아동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급 크기와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같은 구조적 특성들이 더 나은 유아교육환경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반면,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교사와 아동 사이에 상호작용이 아동의 인성을 증진시키 데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IEA Project의 결과에 의하면, 4세 유아가 아동의 흥미에 맞춰 비구조적 활동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에 다녔을 때, 읽고 쓰기 및 수세기와 같은 기술 발달에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게 했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7세가 되었을 때 언어점수가 더 높았다.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빈도, 아동 활동에 성인의 참여 정도 그리고 교사의 교육수준 등이 후에 아동의 언어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3. 성 고정관념에의 도전

유아기의 교육과정은 종종 양성 평등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여성과 남성의 특징적 차이점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동들로 하여금 종종 고정관념에 따르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교사 또한 질문을 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여아와 남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유아기 프로그램은 성 차별에 대하여 도전하기에 가장 유리하며, 교수법과 놀이 자료를 통해 양성 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은 선도적인 스웨덴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양성평등 증진 방법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대안적 교수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교사교육이야말로 교사로서 하여금 스스로의 양성평등관련 교수 실재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초기 언어발달 지원

2개 국어를 사용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용과 실행상의 문제와 사회적, 정치적 분리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베트남은 초등학교 1학년 동안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유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에서는 1970년대 부모들이 지방 언어를 사용하는 2년 과정의 유치원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NGO 및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였다. 1995년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초등학교 첫 3년 동안 지방언어를 사용하는 공립학교 체제를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이행하였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새로 이민 온 아동의 부모들이 유치원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보조 교사로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도록 한다. 소수 언어 배경의 부모들은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기회와 모국어와 문화의 가치를 알고 보존할 기회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5. 특수아 통합에 대한 접근

특수아의 최대 85%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주로 살고 있다. 유아기 프로그램은 아동이 특수아 통합학교로 잘 옮겨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예를 들어, 칠레는 유아교육 교사양성과정에 특수아 통합교육에의 접근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위한 채용광고와 월체어를 위한 자금조달 및 청각보조기구 등을 통하여 통합기관에서 특수 유아들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 또한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 통합적 접근을 권장하고 있다.

6.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그 자체만의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교육의 중요한 기저가 된다. 따라서 아동이 전인적 발달의 개념 하에 초등학교에 갈 준

비를 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적절한 학습조건을 제공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돕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는 ECCE를 초등교육과 더욱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ECCE와 초등교육과 통합시키려는 양상은 교육과정간의 연계성을 확실히 하는 데서 비롯된다. 중유럽과 동유럽의 30개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계별 교육과정에서는 초등교육의 첫 4년 동안은 개별 아동의 속도대로 발달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수제의 평가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메이카의 취학 전 단계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인도와 콜롬비아에서는 다면적 점수제를 도입하여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흥미를 반응하는 능동적인 교육과정과 수업계획을 사용한다.

또한 ECCE와 초등교육과의 연계는 학부모의 참여를 더 강력히 이끌어 냄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서는 시골빈민지역의 부모들에게 그 지방의 노래들과 이야기를 가르치고, 프랑스에서는 지역행 정가들이 저소득층 지역의 부모들과 교사들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IV. EFA 목표 도달을 위한 정책수립의 요건

1.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 요건

EFA 첫 번째 목표인 ECCE의 목표도달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높은 수준의 정책 지원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
- 출생에서 8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문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 책임과 예산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교류가 요구됨.
- EFA 목적에 부합되는 요구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국가적, 국제적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의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와 ECCE에 대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임명 및 의사 결정시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위한 공·사립 서비스 부문을 관장하는 국가의 질적 기준 확립

- 정부와 사립 서비스 부문간의 협력적 관계 강화
- 보다 융통성있는 교사 채용 전략, 적합한 교사교육, 숙련된 교사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질적 기준 및 급여 개선 등을 통한 유아교사의 위상 제고
- 특히 소외계층가정의 유아(빈곤가정, 장애아, 농어촌지역 거주 등)를 위한 공공 재원 증대
- 기부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및 재정 지원
- 국가 예산, 공·사립부문 계획 및 가난 퇴치 전략 문서 등과 같은 정부 관련 자료의 통합

2. 정치적 영향력 확보

이상의 필수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ECCE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 유아교육과 보육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보장을 통해 국가 의제로 채택되어야 함. 칠레, 자메이카, 요르단, 세네갈, 타일랜드, 베트남을 포함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최근 유아기에 국가 정책의 우선권을 두어 ECCE 서비스 확대, 재정 지원의 증대 및 질 제고의 성과를 거둠.
- 폭넓은 관계자들의 참여는 주인의식과 합의를 촉진함. 특히, 부모들의 참여는 지역 사회가 ECCE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자극하게 됨.
- 정부가 국제적 조직과 기부자 단체 및 NGO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의 토대가 될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가동할 수 있게 됨.
- 여타의 국가적, 영역 발전 정책과 ECCE 정책을 연합하는 것은 ECCE 통합을 촉진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적 방법임. 가나, 우간다, 자메이카는 ECCE 발달을 빈곤극복 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으로까지 통합하고 있음.
- ECCE 정책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
- 미디어를 이용한 캠페인(예: 모유수유와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 아빠 역할의 중요성, 신생아 등에 대한 지식 보급 등)은 양육 실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이로 인해 ECCE에 대한 관심을 진작할 수 있음.